

지역

평창군시설관리공단, 설립 5주년 기념식· 나눔활동 펼쳐

강동휘 기자 yulnyo@kwnews.co.kr

입력 : 2026-04-02 14:20:52 수정 : 2026-04-02 14:05:04

기자의 다른기사 보



【평창】 평창군시설관리공단(이사장:최순철)은 지난 1일 설립 5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지난 5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5년을 향한 제2 도약을 다졌다고 밝혔다.

공단은 이날 오전 평창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관내 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아동 7가구를 대상으로 아침 도시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. 이사장과 직원들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눴다.

이어 평창 치유의 숲 세미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5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. 기념식에서는 공 5년 발자취를 담은 기념영상을 상영하고, 최순철 이사장이 기념사를 통해 지난 5년의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 경영 방향을 공유했다. 이어 전 직원이 ‘설립 5주년 다짐 선언문’을 함께 낭독하며 안전, 혁신, 상생, 신뢰의 가치 되새기고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.

오후에는 평창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관내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, 봄맞이 집안청소 및 빨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. 직원들은 창문과 바닥 청소, 이불 세탁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하며 설립 5주년의 의미를 지역사회 나눔으로 확장했다.

또 공단은 설립 5주년 연계행사로 3일 평창 치유의 숲 일원에서 평창군 산림과, 평창군산림조합과 함께 왕벚나무 100그루를 식재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. 공단은 이번 식재를 통해 연간 약 660kg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기대되며, 봄철 벚꽃 명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최순철 이사장은 “설립 5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봉사활동, 연계행사를 함께 추진한 것은 공단이 지난 5년간 자 함께 걸어왔음을 되새기고 앞으로도 군민 곁에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강동휘 기자 yulnyo@kwnews.co.kr

입력 : 2026-04-02 14:20:52 수정 : 2026-04-02 14:05:04

기자의 다른기사 보기

댓글 0

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해주세요

최신순 추천순

댓글이 없습니다.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.